

사회복지과 학생의 현장실습을 통한 지역사회복지의 주체적 참여방안 연구

이 재 호*

〈목 차〉

I. 서론	V. 결론
II. 사회복지 현장실습	참고문헌
III.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 현장실습	Abstract
IV. 지역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활성화 방안	

I. 서 론

사회복지 실습이란 사회복지 철학 및 윤리에 입각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기술을 실습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사회복지 관련학과의 커리큘럼으로 '사회복지 실습'은 각 대학 및 대학교 사회복지관련 학부(과) 또는 대학원의 필수 교과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사회복지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통하여 장차 사회복지사로서 실천적 유능성을 갖추기 위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실천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의 역사와 함께 하는 필수적인 교육과정이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하면서도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 교과목은 그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학계와 현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특수한 교과목이다. 현재 사회복지학의 교과과정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필수 이수 교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럼

* 청암대학 사회복지계열 교수

에도 불구하고 실습교과목은 그 운영에 있어 다양한 문제를 보여 왔으며 대학과 현장이 그 문제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해 왔다.¹⁾

사회복지 학문은 응용과학이요 실천과학으로서 이론과 함께 실천이 중요하기에 현장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휴먼서비스의 특성을 가지는 사회복지에서는 개입도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 자신이기에 현장실습을 통해서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현장을 발견하고, 자신의 실천기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2006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²⁾의 대주제가 ‘사회복지와 인적자원개발²⁾’이었던 것은 늦게나마 바람직한 주제였다고 본다.

사회복지 실습의 중요성을 현장의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학과의 실습생, 그리고 대학 및 대학교의 교수 등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고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슈가 “기관인증제 도입을 통한 현장실습 강화³⁾”라고 하겠다. 이러한 이슈가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학계,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현장 등을 포함하는 사회복지계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배경에는 ‘누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인증을 해 줄 것인가’를 포함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린 사회복지계열 학생들의 실습을 처리하다 보니, 일부 사회복지 실습 관련기관에서 인맥을 동원해 적당히 가르쳐 수료시키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당연히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학교나 학생들이 기관과 실습을 가볍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현장전문가들이 교육자의 가르치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하고, 현장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만 한다. 또한 기관은 실습과 자원봉사를 혼동하지 말고 미래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제살 깎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사회복지 실습의 책임성은 학교와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만큼 현장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지침서”, 2005, p.13.

2) 과거 복지국가들은 빈곤, 실업 및 노령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수동적 소득보장정책으로 해결하고자 하여 복지를 지나치게 ‘소비적’ 영역으로 제한하였으나, 21세기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생산적인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생산요소인 인적자원의 개발을 통한 ‘자주적’으로 사회적 위험을 탈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된 복지국가에서 ‘인적자원 개발’은 핵심적인 정책 수단임에도 부록하고 사회복지학에서는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홍백의, “복지국가와 인적자원개발”, 2006년 춘계 사회복지학회 자료집, p.34.

3) 전국 단위로 매년 1만2천명의 사회복지전공자들이 배출되고 최소 1번 이상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할 텐데 이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는 기관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한국사회복지협회에서 올해 사업으로 실습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는데 이와 함께 기관인증제의 도입도 요구된다. 병원의 경우도 수련병원이 있듯이 사회복지현장에서도 현장실습 기관인증제도도 두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이를 평가하는 인증센터를 두고 정기적으로 인증기관과 수퍼바이저를 평가해야 한다. 양옥경, “기관인증제 도입을 통한 현장실습 강화”, social worker, 2006년 4월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발행, p.

질 수 있도록 충분히 학교에서 준비과정을 갖는 것과 기관 내의 슈퍼바이저(supervisor)의 전문성 향상과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과 함께 하고 있는 사회복지계의 이슈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방안으로서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활성화이다. 지역사회 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의 사회복지자원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⁴⁾ 결국,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현장과 사회복지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의 학습연계 체계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에 동참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훌륭한 인적자원개발과 예비 사회복지 인력의 사회복지참여 활성화가 곧 지역사회복지 발전이라는 목적과 같다고 하겠다.

본 글에서는 먼저 사회복지 현장실습현황을 통해 사회복지 학계와 사회복지현장에서 의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예비 사회복지 인력의 지역사회복지적 접근에서의 사회복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향후 지역사회 참여적인 사회복지 현장실습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사회복지 현장실습 현황

한국사회복지에 관련된 잡지 중에서 진보적인 성향이 아닌 현실보도적인 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잡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행하는 2006년 4월호 social worker를 보면, 현장을 통해 듣는 사회복지실습의 현주소라는 꼭지는 이러한 물음으로 출발하고 있다.

사회복지 교과목 중 가장 현장 반영도가 높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그러나 학교가 실습교육을 실습지에 의존하고 실습지는 소극적으로 그리고 매우 주관적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실습의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학교와 현장의 유일한 연계라고 볼 수 있는 현장실습이 이처럼 소홀히 다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문제점을 1) 기관과 학교의 연계 미흡, 2) 슈퍼비전의 전문성결여 : 부족한 일손 때우기 정도로, 3) 다양한

4) 윤동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정책",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자료집, 2005. 9. p.3.

분야에서의 현장실습확대 : 찬반분분, 4) 무료에서부터 많게는 8만원까지 실습비 다양, 5) 협회, 실습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지역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현장실습의 문제점들로 한정하여 보고자한다.

1. 개별 사회복지 기관 책임위주의 교육

지역사회란 '일정한 지역의 범위 안에서 성립되어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지역사회를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로 한정지어 논하고자 한다. 흔히 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만큼 민주주의의 학습장이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95년에 재도입 된 후 현재 지방자치 3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 234개가 있다.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다. 이들에게 주민살림과 직결되는 일정 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이 위임되어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지표로 확립한 만큼 향후 지방자치가 본 궤도에 진입하면 지역사회의 정치·경제·복지·문화 등 분야에 주민의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아 나갈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한 분야인 지역사회복지는 지방자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단적으로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들이 대부분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으며 지도 및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변화에 맞서 앞으로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복지와 지역사회 조직과의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하면 고립되거나 도태될 수 있음은 자명(自明)하다. 주민과 지역사회로부터 지지와 격려 및 사랑과 온정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을 지역사회와 연계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실습 또한 예외가 아닐 수 없다. 현행 사회복지 기관(시설)의 실습은 단순히 기관(시설) 위주로 펼쳐지고 있다. 이제는 지역사회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실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나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는 자세와 마인드를 제고할 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의 도모는 더 한층 명확해 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관(시설)의 위상은 물론 아울러 사회복지가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는 기틀이 됨은 거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⁵⁾

5) 이재호, "사회복지계열 학생의 현장실습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복지 발전방안", 순천시·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 토론회 자료집, 2006. pp.59~60.

2. 사회복지 실습기관의 절대부족 현상

전국의 사회복지관련 대학교 및 유사 기관에서 1년에 배출되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배출자는 약 12,000 명이라고 한다. 현재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총 숫자는 약 25,000명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단순 노무직 관련 종사자들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인원 수 만을 구분하여 조사된 자료는 발표자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중에서 실습생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슈퍼바이저의 숫자는 더욱더 적다고 본다.

결국, 피교육자에 비하여 교육기관은 훨씬 부족한 것 같다. 이는 학생들을 현장에서 학습시킬 수 있는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많은 실습생들이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교육을 받고 수료하는지 아이러니컬하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을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실습기관에서 전공과목(자원봉사 등 포함)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들을 선별 한 후 취사선택(取捨選擇)시켜 교육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관 여건상 실습 지도를 하지 못하는 곳은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사회복지의 발전적 차원에서 실습지도에 기여이 동참해야 한다.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와 연계된 실습연합회(가칭)를 결성하여 학교와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야 한다.

3. 사회복지 실습생의 가치관 부재

요즈음 청년 실업이 약8% 비율임을 감안 할 때 대학 및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이태백(이십대의 태반이 백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인 현상이기에 “취업”을 위한 대학 및 대학교의 학과 선정이 그만큼 중요해 졌다. 특히 사회적인 필요에 따른 직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지는 학과에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 관련학과의 중요성의 부각과 취업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사회복지관련 학과의 학생수가 팽창되면서 실습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장으로서의 기능보다 단순히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고 있어 사회복지 실습의 지도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학생들은 본연의 역할과 의무에 소홀해 지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다.

현장전문가들이 갖는 공통적인 생각은 해가 바뀔수록 실습의 본질적인 내용에 신

경 쓰는 시간보다 윤리와 에티켓 교육에 할애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은 하지 않으려는 풍토도 예비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의심케 할 정도이다.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학생이지만 자율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기본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련학과와 실습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전 교육과 사전 면접을 강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을 선정해 놓고 문제의 화살을 실습생이나 교수한테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실습생 배정과 일지 점검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 또한 학교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실습에 대한 실습생의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를 심어줄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과정, 사후 관리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4. 학교의 사회복지 실습교육의 열악한 여건

대학 및 대학교에서의 사회복지 실습교육은 매우 열악한 여건임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학생숫자가 많다보니 실습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설령 교육을 실시했어도 형식적인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학생들조차 사전교육을 받았음에도 현장과의 관계나 중요성에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 같다.

둘째는 대학 간의 2년제 학생들과 4년제 학생들의 경우 어떻게 실습의 목표와 방법을 일치시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단과대학은 임상교육을 중심으로 종합대학교는 이론교육을 중심으로 초점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실습 기대치도 약간 상이할 수 있다. 실제 실습과정에서 이런 경우를 종종 목격하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는 교수님들이 학생숫자의 과다와 실습의 번잡함 때문에 실습과목의 담당을 꺼려하거나 현장과의 관계 형성을 기피하는 것 같다. 학교실습이 실습기관 의뢰·협조 - 오리엔테이션 - 실습기관 방문 - 실습보고서 작성 및 지도 - 수업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매우 긴 과정이고 복잡하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신경써야 할 점이 많다. 그러다보니까 연구시간 부족에 허덕이는 교수님들은 실습담당을 멍에나 족쇄로 여기지 않나 싶다.

넷째는 학생 숫자가 많아지는 반면 교수 인력은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실례로 모 학교의 경우에는 실습생의 수가 자그마치 백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실습담당 교수 한 명이 전담하는 실정이다. 학교의 교육문제가 얽힌 데 뒤틀린 격

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현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복지 실습 전반에 걸쳐 도미노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에 심사숙고했으면 한다.

5. 슈퍼바이저(supervisor)의 전문성 부재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을 위한 전체적이고 통합된 교육예산, 교육계획, 교육방법 등이 없다. 이중 사회복지 실습의 전문교육의 부재는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실습교육은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실정이다.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회복지사들이 실습을 지도하다 보면 당연히 전문성은 약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지 현장에서 오랜 노하우(know-how)를 갖고 실습을 지도하는 사회복지사의 숫자가 매우 부족하다.

보수교육의 부재뿐만 아니라 직무 환경적인 요인도 들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관(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은 불행히도 가장 으뜸이다. 이는 처우개선이 되지 않아서 생활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평범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보면 능력에 따라 관장·시설장이 될 수도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부장(또는 과장)과 사무국장에서 도중하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대부분의 관장·시설장은 비전문가 출신이 많음과 중간관리자의 부재는 교육적 요인과 겹쳐져서 전문성 함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스스로 burn out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는 나태함을 탓할 수도 있겠다. 사회복지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중에서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서 항상 배우는 상태로 자신을 위치시키고 있는 사람이 매우 적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능력을 탓하기에 앞서, 사회복지계열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더 거시적인 지역사회복지 차원에서 환경과 제도를 바꿔주어야만 가능하다. 학교와 기관(공공, 민간)이 주축이 되는 워크숍, 실습박람회, 실습편람 제작, 실습연구보고서 작성, 실습기관 및 슈퍼바이저(supervisor) 인증제도 도입 등도 대안이라 하겠다. 한편, 교수님들의 격려 및 지도 방문도 학생 위주가 아닌 실습기관과 선생님을 격려하는 차원과 병행하여 이루어졌으면 한다. 기관에 얼굴 낮 내기 식 또는 학생들에게 눈도장 찍기 식의 방문은 가급적 삼가 해야겠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을 훨씬 낫지 않을까 싶다.⁶⁾ 2년제 대

학의 장점은 기술 중심의 교육으로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다. 최근 대학교육에 있어서 산학연계는 사회복지 관련학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아야 한다.

Ⅲ. 지역복지와 사회복지 현장실습

21세기 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의미는 지리적 특성을 넘어 기능적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우호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가진 용어로서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거나 적극적인 반대를 초래한 적이 없는 개념이다.⁷⁾ 이러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삼는 지역사회복지(community welfare)란 말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문 혹은 비전문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서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⁸⁾

예비사회복지사는 전문인력이 되려고 학습하고 있는 준전문인력으로 보아, 비전문인력과는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비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복지에 참여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현장실습생과 자원봉사자이다. 현장실습에 대한 부분은 앞 장들에서 충분히 다루었기에 자원봉사자만을 보자. 자원봉사자란, 사회적 요구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공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자이다. 즉 스스로 원해서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내가 가진 것(따뜻한 마음, 시간, 재능 등)을 보수를 바라지 않고 제공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자이다.⁹⁾ 이러한 자원봉사에 대한 기획, 진행,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항상 선두에 서서 관심을 가져왔던 영역이 사회복지라는 학문이다. 특히, 준전문인력으로서 예비사회복지사의 자원봉사활동은 학습적인 측면과 전문가로서의 숙련과정의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는 지역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된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목표와 방법을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예비사회복지사들의 참여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6) 표경홍, '심화실습계획안', 표경홍 사회복지사무소, 2002. p.21.

7) 오정수 외,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2005, pp.18~19.

8) 최일섭 외,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pp.34~35.

9) 통일부, "자원봉사활동 지침서", 2002, p.3.에 나온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을 수정하여, 자원봉사자라는 의미를 만들어 보았다.

1.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온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가들의 발전과정에 비추어 볼 때, 지역사회복지의 대두배경과 발전시기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는 그 형태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지역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된 사회복지 환경으로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경제발전을 통한 성장위주의 국가정책이 분배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화되어 가족, 집단, 계층, 지역사회의 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통합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지역사회복지가 대두되게 된 것이다. 둘째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의 실천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한 지역사회주민의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계획, 사회행동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넷째로 지역복지관, 지역복지협의회, 자원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조직화하고 지속화하는 기구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용가능한 실천방법이 바로 지역사회 복지 영역인 것이다.¹⁰⁾

사회복지계열 학생들은 분명히 지역사회 주민들이며, 어쩌면 활용가능한 매우 중요한 자원체계라고 할 수 있기에, 이들의 조직,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공공기관(특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 특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실습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2.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목표와 방법

지역사회복지 실천활동의 목표는 무엇인가? 아니 왜 지역복지 실천활동이 필요한가? 지역사회가 당면한 지역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empowerment, 역량강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역복지 실천활동의 목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지역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차원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강화를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활동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조직활동을 주도하는 지역주민들의 의식화와 주체적 참여 확대, 그리고 토착적 지도력의 배양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조직, 지역사회 차원의 연대활동과 네트워크

10) 김태진 외, "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지, 2000, p.462.

크의 발전을 의미한다.¹¹⁾

이와 관련하여 체크웨이(Checkway)는 지역사회변화를 위한 기본 개념을 다음의 8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1)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강화를 강조한다. 지역사회강화는 집단조직화, 프로그램 계획, 서비스 개발 등을 포함한다. 2) 지역사회 변화는 연대를 통한 집단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연대를 통한 문제해결은 개별 문제에 대한 집단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심리적 지지를 얻게 된다. 3) 지역사회 변화과정에서는 조직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한다. 4) 문제해결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시작한다. 5)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지도력 개발이 요구된다. 6) 지역사회 변화의 동력으로서 자원봉사 인력 등 인적, 물질 연결망이 필요하다. 7) 지역사회 변화에는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8) 변화에 대한 신뢰 즉 집단 개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필요하다.¹²⁾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계열 학생들의 현장실습의 연대, 조직화, 그리고 연결망 구성 등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강조되어질 수 있으며, 어쩌면 가장 전문적인 인적자원 연결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집단이다.

3. 사회복지실천의 방향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사회복지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이론, 기술, 그리고 윤리와 철학이 무엇인지를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규명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진 후에, 사회복지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 관련학과는 교과과정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편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현장은 교육계를 탓하고, 교육계는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사회복지 교과과정에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내용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사회사업교육의 개념틀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크게 6 가지로 구성된다.¹³⁾

1) client의 욕구와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개인, 가족, 케어자, 집단들 그리고 지

11) 이인재, "지역복지 실천의 의미와 주제", 경기복지시민연대 3주년기념 강좌자료집, 2002. p.32.

12) Checkoway, B.(1997), "Core Concepts For Community Change",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4(1) 11-29.

13) Scottish Executive(2005), The frame work for social work education in Scotland.

역사회에 대해 준비하고 함께 일하기.

2) 개인, 가족, 케어자, 집단, 지역사회, 그리고 다른 전문직들과 함께 사회사업 실천을 함에 있어 계획, 수행, 검토, 평가하기.

3) 개인, 가족, 케어자, 집단, 지역사회, 자신, 그리고 동료들과 위험을 사정하고 관리하기

4)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전문적 능력 갖추기

5) 같은 조직 안에서 사회사업 업무를 감독, 후원과 함께 신뢰성을 가지고 관리하기

6) 개인을 지원하여 그들의 욕구, 관점, 그리고 환경을 표현하고 관리하기

위의 6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작성된 개념틀을 참고하면서 사회복지 교육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중요한 학습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절대 ‘사회복지학’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내의 여러 형태의 기관,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과 함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의 진정한 대상자는 철저히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인 약자(social minority)이어야 한다. 이들과 함께 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모델이 구축되어질 때, 진정한 사회복지는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다.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수행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어쩌면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첫 단계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은 항상 바쁘다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함께 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의 지역주민(client, 자원봉사자, 후원자, 자문위원 등)은 전혀 바쁘지 않다. 과연 누가 주체인가를 한 번 점검해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하면, 물론 지역주민이 하는 것보다 잘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은 전혀 가치가 없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 즉, 현재 사회복지 교육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empowerment이다. 지역주민을 사회복지의 주체로 인식하고, 그들의 empowerment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⁴⁾

14) 이재호, “사회복지사시험제도에 따른 사회복지실천과 교육”, 전남사회복지사협회, 2005년도 예비사회복지사 교육교재, pp.39~40.

IV. 지역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현장실습의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이 졸업 후 실무에 임할 때 필요한 개입의 능력과 기술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한 필수 요소는 대학과 현장의 협력이다. 대학에서는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서는 대학과의 협력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¹⁵⁾ 이러한 지역사회 자원(학교와 현장) 간의 연결, 조정, 그리고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대한 접근이 지역사회복지 차원의 한 영역이다.

현장문제는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기본적인 몫이지만, 잘 알려져 있듯이 사회복지 기관은 근무환경의 열악, 장시간의 근로조건, 생계불안, 높은 이직률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토대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전문성을 요구하고 발휘하라는 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처럼 들린다.¹⁶⁾

그런 만큼, 지역복지 발전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사회복지계열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바람직한 체계를 만들어가면서, 학교와 담당교수도 교육적 책임을 인식하고 제반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기관에서는 실습생들이 사회복지 교육방침에 의거 이론과 기술을 응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전문성과 프로그램을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와 기관간의 끊임없는 정보교환과 학술교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 의지가 있어야겠다. 학생들은 실습의 주체임을 명심하고 스스로 권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피교육생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 자세 확립이 급선무(急先務)라 하겠다. 지역사회복지 발전과 함께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복지 실습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사회복지 실습규정의 법제화

사회복지 실습이 하나의 교과목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실습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법규정으로 제정되지 않은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 학교(교수) - 현장(사회복지사)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사회복지관련 대학협의회,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의 연대를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사회복지실습의 체계화, 토착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

1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교육 현장을 답아라”, Social Worker, 2006년 4월호, p.7.

16) 안인경, ‘고품질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협회, 2001, p.45.

기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제도가 도입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갈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이 시점에서, 학교와 현장간의 이론과 실천의 조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십년지대계(十年之大計)이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임을 다신 한번 인식하면서 문제를 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¹⁷⁾

2.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 실습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앞에서 제시하였던 기관 위주의 실습교육과 실습현장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 실습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2002년부터 시작된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의 통합 실습프로그램이나 표경흠의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참여 프로그램¹⁸⁾을 벤치마킹하여 순천 지역에 맞는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 실습 통합 프로그램을 학교-임상현장-전담공무원 등과 함께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대학(교)의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임상현장을 체험하는 것이 향후 자신들의 취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실습을 수행하게 되는 한 곳의 기관만을 체험하는 것으로 자신들에게 맞는 임상현장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물론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도 가능하지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에 대한 기관의 입장과 실습생을 대하는 기관의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자원봉사 활동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3. 현장 전문가의 학교 교육 참여기회 확대

현재 사회복지 실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학교의 지도력부족을 탓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현장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면서¹⁹⁾, 사실 서로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에서는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조하면서 함께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

17) 채수훈, '사회복지 실습의 책임', 사회복지사협회, 2003. 4.

18) 표경흠, '심화실습계획안', 표경흠 사회복지사무소, 2002.

19) 현장에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현장에서 백날 '열심히' 해도 지식은 갖추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지식'은 대학원에도 없다. 김영중, 사회복지현장과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위하여, Social Worker, 2006년 4월호, pp.8~9.

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학교의 입장에서도 현장 전문가의 교육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실천방법론에 대한 강사의 배정에 있어서 임상전문가에게 우선 기회가 주어여야 함은 물론,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임상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는 현장에 직접 학생들이 방문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하였듯이 대학(교)에 있어서 산학연계는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복지계에 있어서의 산학연계는 임상 현장에 학생들이 얼마나 자주 접할 수 있느냐라고 하겠다. 이는 최근 사회복지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마케팅의 개념과도 연결된다고 하겠다. 사회복지 학과의 운영에 있어서 성공적인 모델이 되려고 한다면 마케팅의 개념을 빨리 도입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홍보 마케팅은 바로 임상현장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의 잦은 방문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계에서 가장 빠른 의사전달 수단은 아직도 입소문을 통한 것이기에 그렇다. 적극적으로 임상 사회복지 전문가를 학교로 끌어들이면서 학생들의 빈번한 현장방문을 독려하여야 한다.

4. 슈퍼바이저 재교육 지원 및 실시

현재 학생들의 실습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슈퍼바이저의 부족 및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임상 현장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재정의 부족, 기관의 많은 업무량, 슈퍼바이저의 다양한 업무수행 등으로 슈퍼바이저의 육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들의 재교육을 지원해 주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주는 것은 임상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개입으로 바람직한 현장참여 마케팅으로 보아야 한다. 학생들을 지도해 달라고 임상현장에 일방적으로 보내고 나서 그들의 전문적인 지도의 부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학생들을 올바르게 육성해 낼 수 있도록 대학(교)와 지역사회복지의 입장에서 재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교육의 측면에서 지역사회복지와 함께하는 학교의 입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겠다.

5. 사회복지 가치에 대한 체험 교육 개발

현재 대학(교)에 입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초·중·고등학교의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삶의 올바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인교육의 이념은 무시되고 오직 인지능력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삶의 철학이나 가치를 갖지 못한 이들이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의 가치’를 배우더라도 쉽게 수용되기 어렵다.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의 희생자들인 이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올바른 사회복지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참여 교육방안을 이젠 서서히 지역사회복지 차원에서 모색하여야 한다.

임상현장에서는 앞에서 문제점으로 “대학 및 대학교에서의 사회복지 실습교육의 매우 열악한 여건”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만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성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을 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함께 해결해 보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 현재의 학교입장이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벌써 10회 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정보원의 복지순례나 6회 차를 맞고 있는 사회복지정예화캠프²⁰⁾를 벤치마킹하여, 대학 특성에 맞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복지 현장을 체험함은 물론, 현장전문가와 선배들의 열정, client들의 변화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이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 몇 년간 학교교육에 참가하면서 이러한 작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사회복지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는 이러한 목적을 가진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대해 지역사회와 현장, 그리고 학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사회복지 관련학과 교수들의 현장참여

앞의 제안 3에서 현장전문가들의 교육참여 기회의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면, 연구중심의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교수들이 자신들의 현장을 갖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배려해 주는 것도 현장과 교육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커다란 고리가 될 수 있다.

사회복지 교수들 중에도 사회복지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을 뿐 아니라 필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다. 때문에 현장과 대학이 괴리가 있다 라는 부정적

20) 한덕연, ‘제10차 전국사회복지대학생정예화캠프’ 자료집, 2004.

시선을 받기도 하는데 사회복지교수들도 자신의 필드를 가진다면 당연히 학교와 현장이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타 직종의 경우도 교수가 직접 자신의 필드를 가지고 본인의 필드를 통해 학생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현장과 교육의 고리를 갖게 된다. 자신의 필드를 갖게 되면 자신의 학교 학생들 뿐 아니라 타 학교의 학생들도 만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되고 현장실습을 통해 현장과 학교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수정도 요구하며 살아있는 사회복지교육이 될 것이다.²¹⁾

V. 결 론

사회복지는 휴먼서비스로서 응용과학이요 실천과학으로 이론과 함께 실천이 중요하기에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인 사회복지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의 취업난을 감안하더라도 산학연계를 통한 학생들의 취업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하는 대학(교)에서는 더욱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겠다.

하지만, 임상 현장의 열악한 실습지도 여건,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거의 곪돌고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학교는 기관을 기관은 학교를 향해 서로 책임성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인지능력위주의 교육을 받아 올바른 삶의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은 사회복지 관련 전공학생들은 방치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목적, 방법들을 통해서 보면 사회복지계열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지역사회를 조직화하여, 지역사회의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원체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강조는 예비사회복지사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내 주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먼저 실시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실습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지역사회와 대학(교)에 맞는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앞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1) 사회복지 실습규정의 법제화, 2)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 실습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 3) 현장전문가의 학교교육 참여기회의 확대, 4) 슈퍼바이저 재교육의 지원 및 실시, 5) 사회복지 가치에 대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6) 사회복지 관련학과 교수들의 현장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있어 사회복지

21) 양옥경, “기관인증제 도입 통한 현장실습 강화”, Social Worker, 2006년 4월호, p.15.

계열 학생들의 현장교육 강화가 하나의 방법임을 인식하고 대학(교)과 임상현장의 긴밀한 연계체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임상현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속한 대학(교)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다. 학교와 임상현장이 서로에게 책임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회복지사의 양성에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김영중, “사회복지현장과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위하여”, *Social Worker*, 2006년 4월호
2. 김태진 외(2000), “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지
3. 박석돈·신원식(2000), ‘사회복지 교육과 실천현장의 연계방안’, 경북사회복지연구소
4. 박석돈(2000), ‘사회복지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경북사회복지연구소
5. 안인경(2001), ‘고품질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협회
6. 양옥경, “기관인증제 도입 통한 현장실습 강화”, *Social Worker*, 2006년 4월호.
7. 오정수 외(2005),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8. 이인재(2002), “지역복지 실천의 의미와 주제” 경기복지시민연대 3주년 기념강좌 자료집
9. 이재호(2005),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교과과정 편성에 미친 영향 연구”, 미간행순천청암대학논문집
10. ____ (2005), “사회복지사시험제도에 따른 사회복지실천과 교육”, 전남사회복지사협회, 2005년도 예비사회복지사 교육교재
11. ____ (2006), “사회복지계열 학생의 현장실습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복지 발전방안”, 순천시·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 토론회 자료집.
12. 윤동성(2005),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정책”,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자료집.
13.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2004), ‘2004년도 사회복지실습 슈퍼바이저 교육자료집’
14. 채수훈(2003), ‘사회복지 실습의 책임’. 사회복지사협회
15. 최일섭 외(2004),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6. 통일부(2002), “자원봉사활동 지침서”
17. 표경흠(2002), ‘심화실습계획안’, 표경흠 사회복지사무소
18.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을 통해 듣는 사회복지실습의 현주소”, *Social Worker*, 2006년 4월호
19. _____, “사회복지교육 현장을 답아라”, *Social Worker*, 2006년 4월호
20. 한덕연(2004), ‘제10차 전국사회복지대학생정예화캠프’ 자료집

21. 홍백의, “복지국가와 인적자원개발”, 2006년 춘계 사회복지학회 자료집
22. Checkoway, B.(1997), “Core Concepts For Community Change”,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23. Scottish Executive, The frame work for social work education in Scotland. 2005.

Abstract

A study on the subjective participation plan in community welfare by the medium of the field practicum for social work student in undergraduate courses

Lee, Jae-ho

In social welfare arena field practicum has been an essential instrument and method for social work students to get socialized to the social work professional. However, to whom involve in the actual field practicum - universities(or colleges), institutes - have some difficulties.

On the base of community welfare is a clinical approach in this times. To strengthen community welfare policy, the beginning of community welfare committee is such a good opportunity to tackle the problems of the field practicum.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roblem of the field training are 1) a guidance of an individual social work institute, 2) the lack of social work institute, 3) the absence of the trainee's sense of values, 4) the bad conditions of the field practicum for social work students in undergraduate courses at the university(or college), and 5) the lack of professionalism for supervisors.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social work suggestions to vitalize field practicum in community welfare. It is more likely important to 1) make the law of the field practicum for undergraduate social work courses, 2) make the coordinated programs of the field practicum for undergraduate social work course in community welfare, 3) enlarge the opportunity that a field specialist take further education, 4) support and carry of supervisor reeducation, 5) make the program development of trainee's personal experiences in social work values, and 6) social work professors make a practice in the social work field.